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13 vol.101





SUBLIMAGE
LA CRÈME
TEXTURE SUPRÊME
CHANEL

SUBLIMAGE LA CRÈME

샤넬의 콤플리트 안티 에이징 스킨케어, 수블리마지. 피부에 젊음의 생명력을 더욱 강력하게, 깊고, 오래도록 전해줍니다. 순수하고 고귀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에 담겨진 비교할 수 없는 안티 에이징 파워로 피부는 건강하게 밝은 생기를 되찾아 매끄럽고 화사하게 빛이 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아름다움... 자신감 넘치는 피부를 느껴보세요.

www.chanel.com 고객 센터 080-332-2700

CHANEL



26



12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장안의 손길이 담긴 펜디의 2013년 F/W 광고 비주얼. 펜디의 디자인이 너갈 라거케트가 직접 촬영한 이번 광고 캠페인에는 스포츠 쿼터볼을 잘 표현한 화려한 폭스와 링크를 믹스한 퍼 코트, 퍼 트레이닝 앵클부츠가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겨울 스타일을 보여준다. 문의 02-2056-9023



28



10

- 12 **ALLY CAPELLINO** 런던을 무대로 떠오르고 있는 알리 카펠리노. 허당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작업에서는 진지한 장인 같은 오라가 배어내며, 진지한 삶의 철학도 지닌 기방 디자이너다.
- 14 **DARING ACCENT** 눈길을 사로잡는 강렬함으로 하이 주얼리 못지 않은 광채와 오라를 발산하는 매력적인 커스텀 주얼리.
- 16 **BETTER, YOUNGER** 이번 시즌 더욱 강력한 효능으로 재탄생한 안티에이징 코스메틱을 소개한다.
- 18 **BE WITTY!** 스타일에도 가끔은 유틸리티가 필요한 법. 진정한 패션 고수로 거듭나고 싶다면 스타일에 작은 유틸리티를 더해볼 것.
- 20 **OUTDOOR CHIC** 하이 패션을 정량한 아웃도어 룩부터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의 국내 론칭까지. 지금은 아웃도어 패션 전성기다.
- 22 **HONEY, HONEY!** 달콤한 향과 부드럽고 쫄쫄한 텍스처로 사랑받는 꿀 화장품으로 꿀 피부 만들기.
- 24 **SPLENDID SUITS** 2013 F/W 시즌에서 채집한 6개의 키워드와 함께 포괄하거나 캐주얼하게 변신하는 슈트 스타일링.
- 26 **2013 WATCHES&WONDERS** 세계의 중추국 스위스에서 최고라 칭하는 13개 고급 시계 브랜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 바로 '워치스&원더스(Watches&Wonders)'가 아시아 워치 시장의 메카, 홍콩에서 개최됐다.
- 28 **WINTER DIVA**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함, 우아하고 고혹적인 터치로 시선을 사로잡는 퍼(Fur)의 무한 매력.
- 36 **INNOVATIVE MOVEMENTS** 올해 비젤 월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무브먼트 두 가지는 해밀턴의 정수를 담고 있다. 브랜드의 비전을 보여주는 2개의 심장을 소개한다.
- 37 **THE MOST FABULOUS**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그라프가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 38 **BRILLIANT HOLIDAY** SK-II의 정수이자 상징, '페이셜 트리트먼트 리미티드 에디션'이 연말을 앞두고 어김없이 돌아왔다.
- 39 **ETERNAL FEMININE** 매력적인 향에 흠뻑 빠져들게 할 사별의 N5 홀리데이 컬렉션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 40 **FRESH BEAUTY** 여기 매일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냉장 화장품 프로스틴이다.
- 41 **TAMING YOUR EYEBROWS** 눈썹에 대한 갖가지 고민을 시행착오 없이 해결해줄, 꼭 한번 경험해보아야 할 베네피트 브라우 비에서 눈썹 길들이기.
- 42 **ONLY FOR YOU** 특별한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 선물 박스를 가득 실은 차에서 멋진 남자가 선물을 한 아름 들고 당신에게 다가온다. 이는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조 말론 런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다.
- 43 **FIRST TOUCH** 팔레트보 보메 스킨케어에 대표하느라 크렌치의 뒤를 이어, 피부에 첫 번째로 비르느르 씨름을 새롭게 선보였다.
- 44 **LUXURY REQUIRED** 철나의 경향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에게 특별한 패션 소품이 선사하는 럭셔리한 순간.
- 46 **PINK LADY** 서늘한 기운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해줄 달콤한 핑크 백 컬렉션.

Style 조선일보

Issue.101 November 201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션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www.dior.com

Jewel
THE MYSTERY OF THE MOON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은밀한 움직임, 문페이즈 워치 컬렉션.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 샤넬이 처음으로 선보인 새로운 콘셉트의 J12 문페이즈 워치. 깊은 밤을 표현하는 아벤추린 문페이즈 카운터가 인상적이다. 3천1백3만원 **샤넬 화이트 주얼리**. 가장 고전적인 디자인의 클래식 7787 문페이즈 워치. 에. 캄핑으로 표현한 문페이즈의 별은 블루 에. 캄 라이어 위에 실재 금으로 패인 것이다. 3천9백50만원 **브라운**. 4가지 각기 다른 재제를 붙여 삼각 작업을 한 불로펄 우먼 레트로그래이드 캘린더.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문페이즈가 아름답다. 4천7백만원 **블랑팡, 에디터 베이진**

Focus
FABULOUS FASHION FILMS

엘메이드 패션 필름 한 편은 시즌 콘셉트와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창구다. 여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독특한 사선과 기발한 구성, 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 4개의 아름다운 패션 필름을 소개한다. 먼저 샤넬 화이트 주얼리는 올해 초 프리디에르 워치 영상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새롭게 출시하는 'J12 문페이즈 워치'의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인다. J12 화이트의 10년간의 여정을 하얀 거울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후해 J12라는 이름의 모티브가 된 요트를 거쳐 여름밤처럼 빛나는 깊은 푸른빛의 문페이즈 이미지로 완성한 화이트 왕국을 마주할 수 있다. 미드오아젤 샤넬이 사용했던 밤하늘을 담은 문페이즈와 순수한 화이트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영상이 공금하다면 유튜브 검색 창에 'Chanel J12 White Moonphase'를 입력할 것. 한편 펜디(Fendi)는 칼 라가펠트가 제작한 미스 타리한 단편영화, (Dangerous Invitation)을 공개했다. 카라 델라비안과 사스카리아드 브로우, 아만다 할라카의 열연이 돋보이는 7분짜리 이 영상은 광고 비주얼을 연상케 하는 완벽한 스타일링으로 장사도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생 로랑(ysl.com)은 클래식한 빌라리나 슈즈를 에디 슬러먼의 시간으로 재해석한 '생 로랑 댄스'를 선보인다. 체리 클레이저의 멤버 클레멘타인 크비 의 음유를 배경으로 유연하게 춤추는 여성의 몸짓이 세련된 흑백 영상에 녹아 있다. 알프레드 덴탈(youtu.be/qwjh2JLz10)은 겨울을 앞둔 이 계절에 딱 맞는 필름을 들고 나타났다. 필름 시리즈의 최신작 (Fire and Ice)에는 하얀 눈에 뒤덮인 산을 배경으로 비아 메슬리 리 잰스 선수의 뜨거운 열정과 훈련 과정이 역동적으로 담겨 있다. 긴장감이 감도는 사적 소리는 시운트를 함께 들어야 느낌이 배가되니 지금 당장 스피커를 켜고 재생 버튼을 누를 것. 에디터 **아이진**



샤넬 화이트 주얼리

펜디

알프레드 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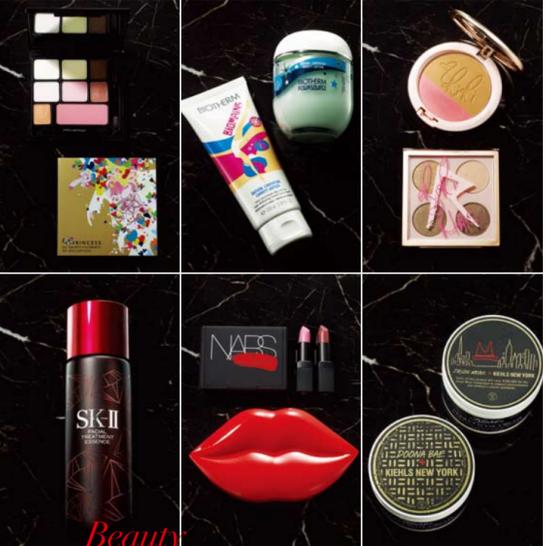
TOD'S KOREA, INC. 02 3-448 8201



TODS.COM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eauty
BEAUTY X ART

이티스트와의 컬라베이션 작업은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업계에서도 큰 화두다. 이는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가장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 매년 컬라베이션 작업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는 **슈에루리다**. 예술은 삶의 한 방식이다라는 브랜드의 철학에 따라 매년 이티스트와의 협업을 선보이는데, 올해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미술의 가장, 무라카미 다카시다. 이번 콜라베이션은 그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6♡PRINCESS'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5.6g 8만5천 원). **비오텔**은 스웨덴 알라스트라이트 카리 모덴과의 컬라베이션을 통해 알레, 불가사리 등의 해양 생물이 바닷속에서 춤을 추는 즐거운 모습을 상상하며 파카지 일러스트를 완성했다. 물속에 감추어진 생명력을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사랑스럽고 유행 있게 표현했다(수분 크림 125ml 8만2천원, 핸드크림 100ml 3만원). 맥은 할리우드 슈퍼 히어로 리안나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그라가 펄스 사용하는 대담하면서도 우아한 메이크업 컬러들을 메탈릭하면서 따뜻한 로즈 골드 패키지에 담았다(아이섀도 5.6g 6만원, 블러시 듀오 12.3g 3만3천원). **SK-II**는 여성들에게 맑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자 스와로브스키 엘리트의 패턴을 입은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스와로브스키 엘리트의 시그니처 기술인 실리온™ 컷으로 표현한 보물 디자인으로, 반짝임이 아름다(215ml 19만원). 작년 앤디 워홀 컬렉션으로 사랑받은 **나스** 이번 시즌 포토그래피 기 부러양의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터치가 가득인 콜라베이션 컬렉션을 선보인다. 도발적인 컬러,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자인이 돋보인다(아이섀도 키트 8만3천원, 립 키트 7만9천원). **카텔**은 이티스트와의 컬라베이션과 더불어 뜻깊은 기부 활동을 펼친다. 뉴욕의 '카텔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상아소재 티 제논 크리즈와 영화배우 배우나가 시회 공헌 파트너로 동참해 '올트라 웨일스 크림' 정보 뉴욕 에디션 을 출시하는 것. 판매 수익금 중 약 1억2천만원은 환경보호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기부한다(125ml 7만2천원). 에디터 **권유진**

Exhibition
(Nordic Passion: 북유럽 건축과 디자인)展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북유럽 디자인'을 복지와 공공 디자인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질 높은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이상적인 학교 건축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공장소 건축 등을 아우른 (Nordic Passion: 북유럽 건축과 디자인)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14년 2월 16일까지 열린다(매주 월요일은 휴관). 이번 전시회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5개국의 교육 기관과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참여한 교류의 장으로 의미 있는 등 '실물'에 가까운 작품이 자리하며, 목재 건축물, 조명 작품, 디자인 소품 등 북유럽에서 건축 자체로 애용되는 목재를 대하고 다루는 그들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작품도 전시돼 있다. 예컨대 로비에 놓인 커다란 소나무 소재의 작품은 관람객들이 위로 올라가 거닐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 또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인상적인 작은 나무 집인 '할머니의 여름 집'에서 볼 수 있는 정겨운 공예품들도 눈길을 끈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인제대학교는 "북유럽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대를 잇는 것에 대한 고찰과 실천이 공공과 일상의 건축과 디자인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단순한 형태와 기능성으로 잘 알려진 북유럽 디자인의 본질은 인류의 평등이며 건축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의 철학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전제로 한다는 그녀의 설명이 와 닿는다. 문의 02-2124-8923 에디터 **고성현**

Book
(영국의 크리에이티브에게 묻다: 좀 재미있게 살 수 없을까?)

도대체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자랐고, 어떤 상상을 살아내고, 어떤 고민과 즐거움을 보듬으며 나아갔을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듯, 21세기 가장 산란했다는 창조 계급(Creative class)의 진면목을 다각도로,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 나왔다. 당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리더들을 직접 만나 진실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과 창의성의 정수를 탐색한 (영국의 크리에이티브에게 묻다: 좀 재미있게 살 수 없을까?)라는 책이다. 이는 (스타일 조산일보)에서 3년여에 걸쳐 연재된 심층 인터뷰 시리즈 'Decoding UK Creativity'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창의성의 허브로 일컬어지는 런던을 주 무대로 저자 고성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창조적 리더 17명을 만나 부단한 창조적 혁신의 비결과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진취적인 열정, 삶의 핵심 가치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답을 쫓아냈다. 영국 패션의 아이콘 폴 스미스, 불굴의 의지로 만지 않는 청초함을 가미한 현대판 영웅 제임스 다이스, 각광받는 스타 디자이너인 재스퍼 퍼모스, 토르트 본체, 로스 러브브로브, 창조적 강계를 넘나들며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로 자리매김한 토머스 헤더워, 따르오는 여성 건축가 아만다 레베트, 영국적 팝아트의 대부인 피터 블레이크, 전설적인 잡지식자 전지거 스트라이더의 발명으로 1인 기관을 운영하는 크 샌더스, 굴지의 광고 기업 사워랜드사의 과거 CEO 케빈 로버츠 등 모두 17명(16편의 흥미로운 인터뷰)이 담겨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사도한 현지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글인 만큼 밀도 높은 교감이 돋보인다. 또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이들의 창조적 여정과 발자취를 보여주는 유려한 작품 사진을 실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가격 1만9천원(책+정품) 에디터 **김민정**

LUNA ROSSA
CHALLENGER OF THE 34th
AMERICA'S CUP

for her Selection

이번 시즌은 동물원을 연상케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오파드 뿐만 아니라 지브라, 밀크 카우 패턴까지, 다양한 애니멀 프린트가 런웨이에 줄을 선 것. 강렬해서 더욱 매력적인 애니멀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스티드와 레오파드 송지가죽이 눈에 띄는 토트 겸 숄더백, 28X21cm, 가격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세련된 블루 컬러의 지브라 패턴 클러치, 25X39cm, 1백78만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블루 컬러의 레오파드 패턴 니트, 40X53cm, 1백78만원 루이비통.

캐츠 아이 모양의 레오파드 신글라스 50만원대 프라다 by 록스타카.

팬더 패턴의 골드 컬러의 레오파드 패턴 펜더 펜더가 유니크한 펜더드 카운터에 이어링 3천만원대 가루타카.

레오파드 패턴 밴드의 시계 60만원대 폴스미스 by 갤러리아몰락.

머스향이 묻어있는 레오파드 귀마개 46만원 데뷔전 by 쿤.

앞코의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레오파드 앵글부츠 2백18만원 주세페 자노티.

새 모티프의 오렌지 컬러 가방 80만원대 에르메스.

지브라 패턴의 고미노 슈즈 82만원 토즈.

새 모티프의 브로치 90만원대 루이비통.

송지와 링크로 연출한 투 슈즈 백 7백77만원 펜디.

레드 컬러의 양가죽 아이폰 케이스 32만원 올채널가바나.

레오파드 스카프 1백만원대 루이비통.

새 모티프의 브로치 90만원대 루이비통.

레오파드 패턴의 링크로 포인트를 준 트렌치코트 1천7백만원대 버버리 프로섬.

- 쿤 02-548-4504
- 펜디 02-3432-1854
- 까르띠에 1566-7277
-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02-3438-6292
- 록스타카 02-569-3914
- 비이커 02-543-1270
-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 갤러리아몰락 080-3284-1300
- 토즈 02-3479-6030
- 에르메스 02-3015-3251
-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 올채널가바나 02-3444-0077
- 루이비통 02-3432-1854



PRADA

LUNA ROSSA

THE NEW FRAGRANCE FROM PRADA
PRADA.COM





블랙&화이트의 레오파드 니트 50만원대 라프 시몬스 by 무이.

레오파드 패턴의 페도라 35만원엔썬니펫 by 10 포르스 코모.

말 모티브의 커피스 링크 40만원대 에르메스.

와이드한 애니멀 프린트의 토트 겸 숄더백. 37X37cm, 2백13만원 지방시.

공방(원) 정교한 벨트 88만원 박방.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드라이빙 슈즈 92만원엔 토토.

지브라 패턴 선글라스 50만원대 디타 by 올티압 W.

레오파드 질감 스카프 1백만원대 토토.

세라믹 소재가 유니크한 레오파드 보타이 38만원 코르시네 라베도리 by 10 포르스 코모.

백 가죽으로 만든 레오파드 스카프 1백만원대 토토.

바게트 컷 스톤을 화려하게 세팅한 18K 레드 골드 케이스의 박방 레오파드 골드 워치 5천만원대 워블로.

남성용 클러치 백으로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거미 패턴의 클러치 백 1백만원대 토토.

- 무이 02-3446-8074
- 몽블랑 02-3485-6627
- 토조 02-3438-6008
- 버버리 02-3485-6536
- 올티압 W 02-6911-0845
- 생로랑 02-547-5741
-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 10 포르스 코모 02-3018-1010
- 에르메스 02-3015-3251
- 워블로 02-540-1356
- 지방시 02-6905-3664
- 발방 02-6905-3585
- 폴제안가바나 02-3444-0077
- 분더삼엔 02-3444-3300

매력적인 애니멀 패턴을 칼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셔츠. 핏과 질감을 프린트로 표현한 카디건 각 83만원, 68만원 모두 미하라 아스히로 by 분더삼엔.

available at www.emporioarmaniwatches.co.kr AR1700

EMPORIO ARMANI



Ally Capellino

The Women Who Inspire Us *interview 02*

칸트는 “패션 안에서 바보가 되는 게 패션 밖에서 바보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했을 정도로 철학자로서는 드물게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런던을 무대로 떠오르고 있는 알리 카펠리노는 패션 안의 바보를 가득 품고 있는 듯한 가방 디자이너다. ‘허당’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작업에서는 진지한 장인 같은 오라가 배어나며, 풍파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서인지 나름의 진지한 삶의 철학도 지닌 그녀가 사이클을 즐길 때 매는 알리 카펠리노 표 가방을 보면 분명 칸트도 반했을 것 같다.



한 해 4백만 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유수의 해외 갤러리가 그렇듯이 이곳에서도 미술관만큼이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디자이너 스펀의 인기가 높다.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면 으레 그와 관련된 주제나 해당 아티스트를 모티브로 삼아 선보이는 ‘현정판’ 디자인 컬렉션도 이 쇼핑 공간의 볼거리다. 예컨대 호안 미로의 환상적인 문양과 색채를 반영한 스카프 나 마크 로스코의 우아한 추상 작품을 곁에 프린트한 예코 백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때마다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컬렉션 사이에서도 벌써 6년 넘게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은근한 ‘스테디셀러’가 있으니, 알리 카펠리노(Ally Capellino)라는 브랜드가 이 위풍당당한 현대미술관만을 위해 제작하는 테이트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전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약간은 투박한 느낌이 묻어나는 독특한 캔버스 소재에 살짝살짝 가죽을 덧댄 멜빵 가방(satchel)과 필통, 앞치마, 간단한 미술 도구를 넣고 돌돌 말 수 있는 아티스트 롤 등으로 이뤄진 부담 없는 캔버스 컬렉션이다. 가볍고 튼튼한 편인 데다가 깔끔한 디자인까지 곁들이니 이 컬렉션은 이 도시의 수많은 아트, 디자인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온 관람객들에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세일이라도 할라치면 런던의 멋쟁이들 중 알 만한 이들은 재빠르게 집어갈 태세를 갖춘다. 런던에 두 군데밖에 없는 알리 카펠리노 매장의 ‘AO’ 라인 등 비슷한 제품 가격대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가량 비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정한 팬이라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왁스 코팅 처리한 특제 캔버스와 이탈리아산 가죽까지 사용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다면적인 매력을 주는 가방에 눈독을 들이겠지만 말이다.

일상의 미를 품은 테이트 컬렉션, ‘장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다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의 캔버스 라인을 들고 있는 이들을 봤죠. 노신사도 있고, 10대 청소년도 있어요. 여권과 지갑 등을 간단히 담을 수 있는 여행용 캔버스 백 같은 아이템은 여성뿐 아니라 누구나 애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특히 테이트 컬렉션은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2006년에 테이트와 콜라베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테이트 갤러리를 위한 ‘우리만의 디자인을 하겠다’는 건 우리 마케팅 담당자의 제안이었지요. 특정 전시회를 겨냥한 디자인이 아닌 덕분에 ‘수령이 길어진 셀이죠. 예를 들자면 피카소 전시회를 위한 디자인 컬렉션을 의뢰받아 피카소 필통, 피카소 쿠션 등을 만든다면 길어봤자 6개월이면 물건을 빼야 하잖아요.” 런던 이스트엔드의 소디치에 위치한 매장에서 직접 마주한 알리 카펠리노는 테이트 컬렉션의 장수 비결을 이렇게 분석하며 상당히 뿌듯해했다. 그렇다. 전시회가 새로 들어 서면 매장에서 철수하는 한시적인 상품이 아니면서도 고정 팬을 사로잡는 매력을 발산한다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당연히 평정한 ‘플러시’ 요인이다. 실제로 알리 카펠리노의 테이트 컬렉션은 색깔이나 약간의 디테일에만 변화를 줌으로써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영리한 결정이지만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단지 특정한 전시회나 아티스트를 콘셉트



로 하는 디자인을 하는 건 우리 스타일하고는 잘 안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판단을 잘한 게 되어 버린 것이죠(웃음).” 놀랍지는 않다. 그녀는 영약한과는 거리가 먼,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순수한 소녀다움이 묻어나면서도 뭐든 꾸밈없이 털어놓으며 웃어넘기는 초연한 여유로움이 흐르는 인물이다. 나름 차분하고 진지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장난스러운 눈빛을 발산한다. 영국인 특유의 자조적인 유머마저도 유쾌하기 이를 데 없게 만들기에,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무장해제된다.

‘허당’의 매력, 브랜드의 명예가 되다
사실 필자는 오래전 알리 카펠리노의 가죽 배낭을 보고 반해 팬이 되었는데,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매력적인 브랜드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계통이 아닐까 추측했다. 다분히 이탈리아 분위기를 풍기는 카펠리노(Capellino)라는 이름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브랜드명조차도 그녀의 ‘허당’스러운 면모를 반영한 실수의 산물이다. 그녀의 본명은 앨리스 로이드(Alison Lloyd). 런던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더블린, 요르셔 등지를 거치며 살다가 미술석사대학에 입학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당시 동창이었던 남자 친구와 함께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피오루치(Fiorucci)의 요청으로 매장의 윈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모자를 디자인하게 됐다. “뭔가 이름이 필요했는데, 이탈리아어로 카펠리노는 ‘작은 모자’라는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간에 철자가 하나 빠져버렸군요.” 그들의 의도대로 ‘모자’라는 뜻을 나타내려면 ‘Cappellino’가 됐어야 했던 것이다. 나중에 딴 이름으로 바꿔야 했나 싶었지만, 다들 ‘괜찮다’고, ‘너무 늦었다’고 해서 그냥 놔뒀다. 지금은 가방, 소품 등과 같은 액세서리를 주로 다루지만, 원래는 의상을 디자인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옷을 만들어 입었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팔기까지 하는 ‘예비 디자이너’였다. 잘 팔렸다는 질문에 그녀는 “오, 그럼요. 돈을 잘 벌었죠. 집에 당시의 장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바지 한 벌에 1.5파운드라고 적어놓은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이러한 회상이 스스로도 즐거운지 줄곧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대학에서 패션과 섬유를 전공하고 난 다음인 1980년대 초에 모자 디자인을 함께 했던 남자 친구인 조노 플랫과 손잡고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로 정식 데뷔했다. 당시 모스크바 올림피크를 소재로 삼아 러시아풍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사용한



1, 2, 8, 9 런던 소디치에 위치한 알리 카펠리노의 플래그십 스토어. 캔버스 먼 소재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다용도 백, 빈티지 느낌이 나는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원지 모르게 평가한 연모도 살짝 품고 있는 가죽 백, 필통과 열쇠고리 같은 액세서리 등이 사랑스럽게 진열돼 있다. 3 1966년생으로 마흔과 향기를 맞이할 알리 카펠리노. 아직도 소녀 같은 귀여움과 자유로운 감성이 가득 묻어나다. 4 알리 카펠리노. 제품에는 콜라베이션 라인을 제외하면 프랭크, 엘리, 제이카 등 영국에서 친근하게 사용되는 인명을 부여한다. 시몬은 ‘Dean’이라는 이름의 캔버스 소재 배낭. 5 테이트 갤러리와 협력해 내놓고 있는 테이트 컬렉션. 2013년 F/W 컬렉션. 6 2013년 런던 디자인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알리 카펠리노의 의자 ‘Burns on Seats’(영국에서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관망과 수를 뜻한다). 원래 PEL이라는 브랜드의 의자인데 여기 사람이 착석하는 방식에 따라 있는 부위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영감이 모았는지 가죽을 덧댄 방식이 재미있다. 7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들의 전용 백 리노도 알리 카펠리노의 스타디셀러다. 10 이탈리아산 가죽에 스웨이드 라이닝 등을 덧댄 백 ‘Claudette’.



디자인 자체에 전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데 시선을 돌렸다. 가방 디자인이었다. “사실 지루해서 재봉을 하나로 만들어 본 거예요. 하지만 가방은 시도해본 적이 없고, 가족도 다들 줄 물러서 고생을 좀 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옷을 만들던 방식처럼 가방을 대하니까 제 작품의 모양새가 좀 달랐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각을 잡기 위해 판지 등을 사용해 꽤 딱딱한 느낌의 가방이 많았고 접착제도 많이 사용했는데, 저는 옷을 디자인하듯 솔기를 꿰매 뒤집었거든요. 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디자인이 나온 것이죠.”

애플과의 협력,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일궈내다
솔직히 좀 어설픈게 시작한 가방 디자인이 효용을 얻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기가 제법 높았고, 가족을 만지는 데 흥미를 느끼기에 그녀는 아예 사업을 시작했다. 늘 그랬듯이 열정과 ‘혹이 이끄는 대로. 물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토대를 쌓아 올라가 했기에 잔잔히 해나갔다. 알리 카펠리노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소디치의 매장과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allycapellino.co.uk)가 구축된 것은 2005년이 되어서였다. 알리 카펠리노라는 브랜드가 은근한 입소문을 타고 지지자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에도 사업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점이 못내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정감 있는 디자인, 빈티지 느낌을 주는 가죽의 오묘한 색감과 약간의 재미를 더해주는 장식... 이렇듯 꽤서너를한 가죽 제품도 인기지만 간편히 메고 다닐 수 있는 사이클링 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데도 알리 카펠리노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백에 친근한 이름을 부여하는데, 한쪽 어깨에 메 수 있는 ‘프랭크(Frank)’는 그레이, 블랙, 레드, 브라운 등 4개를 소유할 정도로 애정이 깊다. 왁스 코팅된 몸체의 밑부분이 가죽을 댄 이 가방과 편리하면서도 멋스러운 가방은 알리처럼 사이클을 사랑하는 런더너들이 탐내는 상품이다. 이 브랜드의 또 다른 자랑은 애플과의 콜라베이션으로 출시한, 백에이나 아이패드를 담을 수 있는 컴퓨터 가방이다. ‘테이트 컬렉션을 이끌었던 마케팅 담당자가 있는데, 그녀가 애플에 전화를 걸어 제안했어. 당시로서는 패션 브랜드가 컴퓨터 가방을 디자인한 건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아이디어가 괜찮았는지 애플에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두꺼운 계약서를 검토하라고 보내줬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자니 그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아 그냥 사인해버렸죠(웃음). 결과적으로 히트 상품이 됐고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애플 백이 나온 건 2008년. 나일론 소재의 멋있는 랩톱 가방들이 판을 치고 있던 때라 나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는 패션 소품처럼 근사한 디자인이 혼재해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그녀를 보니 풍파를 겪고 재기한 인물답게 마냥 ‘허당’스럽지 않고 투실한 심지가 느껴졌다.

‘허하실실’ 마인드가 사랑스러운 그녀의 비전
테이트와 애플과의 잇따른 콜라베이션 성공, 그리고 팬층이 점점 두꺼워지는 가죽 라인 과 캔버스 라인의 견고한 성장. 유럽 시장의 가나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그녀의 액세서리 사업은 순항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소디치 매장을 새 단장하고 런던의 유서 깊은 명품 백화점인 리버티백화점에 ‘숍인숍’ 형식으로 입점을 성사시켰으며, 노팅힐 지역에 아름다운 2호 매장을 차렸다. 해외 시장에도 직영 매장은 아직 없지만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리브루’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인생의 중간에 쓰러린 경험을 겪었기에, 그리고 한 번도 평강한 야심이 아닌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확장에 신중하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시스템을 더 갖출 필요는 있지만 향후 계획을 묻는다면, 그냥 뭔가를 하고 싶어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나만의 러서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우리 브랜드만의 제조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싶다는 소망은 있어요. 실제로 기계 설비를 사들이고 있지요. 그래야 디자인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성공이란 스스로 뿌듯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만약 인정까지 받게 된다면 ‘덤’이라고 말하는 알리 카펠리노. 그래서 그녀의 성장한 ‘아이들이’ 그토록 모친과 가깝게 지내고 ‘엄마의 디자인 작업을 자신의 일처럼 사랑하는’ 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이 여인은 참으로 따스하고 유쾌하며, 궁정적인 캐리커가 내재된 듯한 느낌을 풍긴다(말은 사치, 이들은 그때마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도 그녀의 사이클링 가방이 잘 어울리는 귀여움까지 간직하고 있다. **스타디셀러** **클라렛** **클라렛** **클라렛**

Daring accent

더욱 과감해졌다. 게다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다. 눈길을 사로잡는 강렬함으로 하이 주얼리 못지않은 광채와 오라를 발산하는 패션 브랜드의 매력적인 커스텀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글러드 스타일레토 힐 9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골드 체인 장식의 가죽 밴드 66만원 펜디, 체크 패턴이 감각적인 벨트 가격 미정 샤넬, 목을 감싸는 볼드한 디자인의 조목 네크리스 59만3000원, 북고 무드 의 메탈 선드리스 가격 미정 모두 디올, 두꺼운 키모스 형태의 크리스탈 배네티 벨트 54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구 조각인 세이프의 골드 벨트 1백30만2천원 생 로랑, 골드 플 레아 벨트와 크리스탈 장식이 조화를 이루는 바네일 네크리스 1백30만원 스와로브스키, 허트 포슬린 장식이 독특한 체인 팔찌 가격 미정 보테가 벤테라, 다양한 핏먼트 장식을 다한 골드 & 피플 팔찌 39만원생로랑, 1백90만2천원 모두 핀도라, 화려함이 옛모이는 블루 크리스탈 네크리스 9백 45만원 구찌, 브랜드 로고 패턴을 친숙하게 새겨 넣은 인 클루전 아르데코 컬렉션 브로치, 벨트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에디터 권유진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펜디 02-2056-9022 샤넬 02-543-8700 디올 02-513-3232 스와로브스키 02-3438-6108 생 로랑 02-3438-7627 보테가 벤테라 02-3438-7682 핀도라 02-3438-6096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 2013 SWAROVSKI AG
 24/7 enjoy shopping at SWAROVSKI.COM

2
 SWAROVSKI
 moments to give



Miranda Kerr



Unique Mini Bags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트 모양의 레오파드 패턴 백, 13.5X11.5cm, 20만원대 **러브 모스카노**, 이브라코 도자기 장식이 매력적인 벨가죽 클러치, 10X16.5cm, 5만9천9백원대 **보테가 베네타**, 꽃등을 연상케 하는 레드 체인 백, 12X11cm, 가격 미정 **샤넬**.



Neon Sign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청량 옐로 컬러의 파우치 67만원 **디올**, 유령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장지갑 21만5천원 **파리 하우스 by 비아커**, 광채한 스타드 벨트 46만5천원 **안타버비 by 톨 그레이하운드**, 네온 핑크 컬러의 숏이치갑 80만원대 **생 로랑**.

be Witty!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삶에 활력을 주듯, 스타일에도 가끔은 위트가 필요한 법. 재기 발랄하고 익살스러운 디자인을 얼마나 적절히 믹스 매치하느냐에 따라 스타일은 한 곳 차이로 달라진다. 진정한 패션 고수로 거듭나고 싶다면 스타일에 작은 위트를 더해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Pattern Play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트 패턴의 송치 클러치 1백만원대 **버버리**, 7호리자얀 패턴이 조화를 이룬 플랫슈즈 1백34만원 **크리스찬 루부앵**, 스타드 장식의 레오파드 송치 클러치 1백90만원 **발렌티노**.



Fun & Funky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폭스와 핑크 피로 재조합된 몬스터 미니 바게트 백 21X13cm, 5만9천2백원, 익살스러운 동물 모티브의 몬스터 토폴 킷 92만원 모두 **벤디**. 시공스러운 파와 화려한 주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블루 하이힐 1백90만원대 **루이 비통**, 기타 모티브의 크로스 백, 23X31cm, 76만원 **모스카노 합엔시크**, 에디터 권유진

러브 모스카노 · 모스카노 합엔시크 02-6905-3892 보테가 베네타 02-3438-7882 샤넬 02-543-8700 벤디 02-3432-1854 루이비통 02-3432-1854 버버리 02-3485-6536 발렌티노 02-543-5125 크리스찬 루부앵 02-6905-3795 디올 02-513-3232 비아커 02-443-1270 톨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생 로랑 02-3438-7627



My Story, My Design



Celebrate your Christmas moments with sterling silver charms.
 Worn by Ko So Young, trendsetter in Korea.
 Get inspired by Ko So Young's story and see her design at pandora.net/ko-kr

PANDORA
 UNFORGETTABLE MOMENTS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무역센터점 신촌점 천호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노원점 평촌점 대구점 울산점 광주점 부산점 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영등포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AK PLAZA 수원점 분당점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신라면세점 서울점 롯데면세점 월드점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한국 공식 수입원인 (주)스타럭스에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위의 매장을 책임, 관리, 운영하며, 위 매장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한하여 제품 보증을 해 드립니다. 공식 수입원 (주)스타럭스 www.starluxe.co.kr



에르메스의 2013 F/W 광고 비주얼.

루이비통의 트레킹 슈즈.

무스너클의 2013 F/W 광고 비주얼.

손목에 모피를 덧댄 에르노의 패딩.

210 알래스카 구조대에서 영감을 얻은 파라점퍼스.

루이비통의 모던한 아웃도어 룩.



Outdoor chic

하이 패션을 접명한 아웃도어 룩부터 붓물 터지듯 이어지는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의 국내 론칭까지. 지금은 그야말로 그 끝을 모르고 고품 행진 중인 아웃도어 패션 전성기다.

하이 패션을 접명한 아웃도어 룩

승미용품을 만들면서 브랜드의 역사를 시작한 에르메스와 구찌, 여행에서 비롯된 루이비통, 스키복이 시초인 에일리오 푸치, 쿠티르급 아웃도어 룩을 지향하는 몽클레르... 아웃도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패션 하우스는 그들의 훌륭한 유산을 바탕으로 매 시즌 모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엔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실루엣이나 신소재를 적극 활용하며 전문 스포츠 브랜드 못지않게 기능성을 강화했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1930년대 여성용 스키복을 재해석한 에르메스가 대표적.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6백만원대부터 1천2백만원대까지 호가하는 럭셔리 스키복은 숏가죽을 특수 가공 처리하거나 울과 앙고라를 섞은 더블 울 소재로 보온성은 기본, 비와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땅 배설이 잘도록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했다. 남성 걸작선에서 대부분의 룩에 매차한 트레킹 부츠는 미끄럼 방지 고무 밑창을 2중으로 덧댄 실재 등산용 부츠로 고안했다는 사실. 이전에는 투박한 굽 모양이나 신발 끈 등 아웃도어적인 모티브만 가져왔다면, 지금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아이템이 대세를 이룬다. 매 시즌 여행을 떠나는 루이비통 역시 시즌별로 선보인 트레킹 슈즈나 백팩, 트래블 백 등을 좀 더 기능적으로 강화했다. 끈이 얇은 인텔에 캐쉬미어 모티브를 버블로 사용하거나 매트가 들들 밀려 있는 백팩을 보고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아웃도어 모티브를 끌어들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엔포리오 아르마니는 네오 프렌이라는 신소재를 내세웠는데, 트레킹 팬츠나 블루중 스타일의 점퍼 등에 적용해 마래지 향적으로 응용한 점이 돋보였다. 가볍고 신축성이 좋아 잠수복과 운동복에 주로 쓰이던 이소재가 아르마니의 완벽한 패션을 만나 당당히 하이 패션에 이름을 올린 순간. 몽클레르 같은 블루루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하이랜드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타탄체크 패턴의 패딩 아우터와 가죽, 양털을 믹스한 몽크 스트랩 슈즈 등으로 예술성까지 갖춘 아웃도어 룩을 탄생시켰으며, 광범은 포켓이 달린 카디건 이노라 점퍼에 스포티한 백팩으로 예사치 못한 남자의 모습을 완성했다.

미래적인 무드가 느껴지는 엔포리오 아르마니.

캐나다 구스의 하이브리드 라이트 점퍼.

캠퍼의 고어텍스 슈즈.

캐나다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노비스.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의 국내 론칭

일상에서도 멋지게 아웃도어 룩을 즐기고 싶은 20~30대는 감각적인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몽클레르와 캐나다 구스의 국내 진출이 성공을 가두면서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가 몰입되어 들어오는 추세. 먼저 캐나다 구스를 위협하는 캐나다 태생의 프리미엄 아우터를 주목해보자. 무스너클(Moose Knuckles)은 울룩불룩한 부피 때문에 패딩을 꺼리는 여성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브랜드. 보디라인을 타고 흐르는 타이탄 실루엣과 착용감이 특징으로, 기능성과 스타일을 강조하는 북미 지역 패딩 브랜드로는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내세운다. 반대로 노비스(Nobis)는 독자적인 엠브레임 라미네이션 패브릭과 디테일로 기능성에 좀 더 초점을 둔 브랜드다. 수분이 침투하는 것은 차단하고 내부 습기와 맑은 즉각적으로 내보내는 특수 소재와 다온 프루프 라이닝, 밀리터리 포켓 등 기능을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납공간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에 맞서는 2개의 밀리터리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편입 매장을 중심으로 선보였던 에르노(Herno)는 갤러리아 명품관에 안착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했다. 테크니컬 소재의 레인코트 전문 브랜드에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초경량 충전재에 고어텍스나 윈드 스톱퍼 같은 기능성 소재로 마치 캐시미어 카디건 한 장을 걸친 듯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파라점퍼스(Parajumpers) 역시 가장 착박하고 외진 곳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210 알래스카 구조대에서 영감을 받은 메탈 버클 장식과 다양한 포켓 장식, 노란색 밴드 디테일 등 독특한 요소가 포인팅다. 해외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가 국내에 알려지기 들어오는 데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층부는 한파도 한몫하겠지만 최고급 소재와 감각적인 디자인, 완성도 높은 디테일 등 저마다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로 남다른 충족감을 안겨주기 때문일 것이다. 새롭게 합세한 이들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국내 프리미엄 패딩 마켓을 얼마나 잠식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듯하다. 에디터 **이예진**

바버의 게이티어.

체코가 포인팅된 몽클레르 검코 부츠.

루이비통의 백팩.

에르메스의 트레킹 슈즈.



MOOSE KNUCKLES

공식 수입원 (주)starluxe www.starluxe.co.kr
 갤러리아 WEST 2F 02.6905.3887 / 신세계 강남 3F 02.3479.6269 / 신세계 본점 본관 5F 02.310.1746
 www.facebook.com/mooseknuckleskorea

honey, Honey!

피로 해소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꿀은 건조하고 힘을 잃은 가을철 피부에 보약 같은 존재다. 달콤한 향과 부드럽고 쫄쫄한 텍스처로 사랑받는 꿀 화장품으로 꿀 피부 만들기.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가운데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멜비타 아피코스마 크리미 클렌징 밀크 꿀과 네블라, 로얄젤리, 스위트 이온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크리미한 클렌저. 부드러운 텍스처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을 깔끔하게 없애준다. 200ml 9만8천원. 문의 02-3014-2997

마리 제이름스 하니 마크 제이름스 도트 시리즈의 동생격인 '하니'는 밝은 햇살처럼 생기발랄함을 담은 플로럴 향수다. 상쾌한 배가 향의 시작을 알리며, 은은한 오렌지 블러섬으로 이어지다가 따뜻하고 달콤한 하니로 마무리된다. 30ml 6만5천원. 문의 02-3443-5050

프랑스 크렘 앙시엔느-얌미닛 나리싱 하니 마스크 얼굴에 바른면 풍겨오는 향과 부드러운 텍스처가 이제 진짜 꿀인가 싶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하니 마스크. 화장물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 함유량인 38%의 퓨어 하니가 생기 있는 피부에 보습력을 띄워 재생을 돕는다. 100ml 21만원. 문의 080-822-9500

로라 메르시에 하니 바스 꿀을 뜰때 사용하는 하니 디프로 옥조에 풀면 풍성한 거품이 생기는 바블 배스 압류제. 아라비카 카피 추출물과 사니온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피부 조직을 건강하게 다져준다. 웃을 일고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일몰향원의 향기 덕분에 7분 건조에 도움이 된다. 300g 5만8천원. 문의 02-514-5167

러쉬 하니키즈 카다란 치즈 당아리를 연상시키는 사각형 바누. 표정을 들지마자 파지는 달콤한 꿀 향은 직접 맡아도 좋아진 진행이 더 매력적이다. 꿀은 물론 비즈 왁스, 알로에 베라 등을 담아 까칠한 피부결을 촉촉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100g 8천4백원. 문의 1644-2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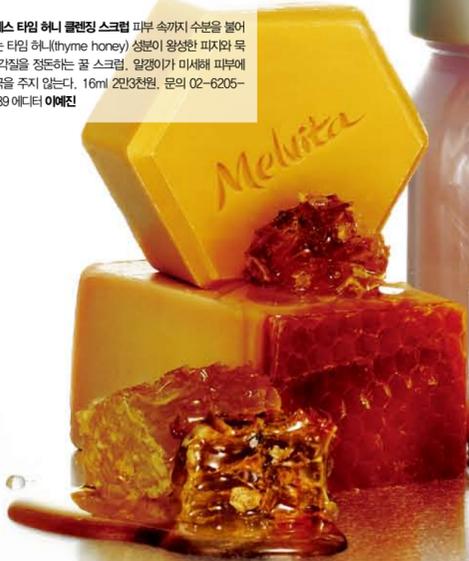
멜비타 하니-아피코트 핵사고날 슝 앙방기였던 베르니르 세발디가 멜비타를 설립한 후 처음 만든 바누. 꿀과 식물성 오일 성분이 부스에 도움을 주며,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100g 1만원. 문의 02-3014-2997

결량 아베이 로얄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 딸아진 탄력을 끌어올리고 손상된 피부를 치유하는 트리트먼트 오일. 피부 탄력을 좌우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워싱 해니와 브랜드의 독자적인 기술을 접목해 높아지기 쉬운 알콜 라인을 배제하게 잡아준다. 28ml 12만8천원. 문의 080-343-9500

러쉬 페이스 트레이드 하니 아프리카 미움보 숲에서 가져온 꿀을 50% 가까이 담아 방부 보존제가 필요 없는 알맞은 꿀 샴푸. 모발이 무척하고 윤기가 없거나 뽕뽕이 적어 고민인 이들에게 추천한다. 팩어 트레이드라는 이름처럼 긍정 무역을 통해 진정한 양봉 방식으로 얻은 꿀을 사용한다. 110g 2만2천원. 문의 1644-2357

비츠비 래디언스 토너 클렌징 후에도 남아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유분기를 깨끗하게 정돈해 다음 스킨케어 단계의 흡수를 돕는 토너. 로얄젤리 성분이 착착한 인색을 개선하고 광채를 더해 생기도는 피부로 가져온다. 175ml 3만3천원. 문의 02-543-7685

코레스 타임 하니 클렌징 스크럽 피부 속까지 수분을 풀어내는 타임 하니 (thyme honey) 성분이 알맞은 피지와 묵은 각질을 정돈하는 꿀 스크럽. 알갱이가 미세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16ml 2만3천원. 문의 02-6205-8889 에디터 아예진



Solar living collection





Grey chic
올겨울을 책임질 가장 세련된 컬러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회색. 에르메네집도 제너를 비롯해 보티가 베네타 등에서 선보인 공식에 따라 톤이 조금씩 다른 회색으로만 통일하는 고난이도 스타일링을 참고하라.



Retro Check
이번 시즌을 강타한 체크는 수트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간격이 넓은 원도 패턴 체크는 복고적인 느낌이 강하니 잔잔한 도트 무늬 셔츠나 워트 넘치는 캐주얼 타이로 경쾌함을 불어넣을 것.



Cool Charcoal
블랙 수트의 대안으로는 네이비가 아닌 칠향처럼 어두운 차콜 그레이를 선택하라. 카무플라주 프린트 타이나 스트라이프 셔츠를 더한다면 말프 로렌 컬렉션의 스텔리프 수트도 단숨에 젊고 트렌디하게 변신한다.

Splendid suits

어떤 셔츠와 타이를 매치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클래식 수트의 세계. 2013 F/W 시즌에서 채집한 6개의 키워드와 함께 포말하거나 캐주얼하게 변신하는 수트 스타일링을 눈여겨보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Gentle Brown
사려 깊은 신사를 떠올리게 하는 브라운 수트는 자칫 잘못하면 나이 들어 보이기 십상이다. 좁고 슬림한 라펠과 아웃 포켓 디자인을 고르고 고급스러운 패턴과 소재의 타이로 룩의 완성도를 높일 것.



Double Play
더블브레스트 디자인이 캐주얼하게만 느껴진다고? 세련된 그레이 컬러와 잔잔한 체크 패턴을 선택하고 타이의 두께와 행커치프에 신경 쓰면 격식 있는 모임에도 멋지게 어울린다.



Stripe Strike
스트라이프 수트는 스마트한 비즈니스맨을 위한 최고의 선택. "기하학적 패턴 셔츠와 니트 타이"를 따듯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스타일리스트 유현정의 조언이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Grey Chic 화색 테일러링 수트 2백만원대, 블루 셔츠 40만원대 모두 **버버리 런던**, 사선 스트라이프 타이 20만원대 **버버리**, (오른쪽) 저지 플란넬 셔츠, 독특한 패턴 베스트 각 1백만원대, 실크 타이 20만원대 모두 **보테가 베네타**, 행커치프 24만원 **키튼**, Retro Check 보라빛이 도는 체크무늬 재킷 1백39만원, 타이 21만원 모두 **올 스티스**, 스트라이프 셔츠 65만원 **올세판가버나**, (오른쪽) 도트 무늬 블루 셔츠 35만원 **올 스티스**, 카키 컬러 타이 21만원 **말프 로렌 라펠**, 행커치프 7만8천원 **로다 코리아**, Cool Charcoal 스텔리프 수트 69만8천원 **말프 로렌 퍼플 라펠**, 블루 셔츠 50만원대 **발렌티노 by 주느세라**, 카무플라주 타이 110만원대 **하이드로젠 by 주느세라**, (오른쪽) 스트라이프 셔츠 63만8천원 **말프 로렌 퍼플 라펠**, 타이 21만8천원 **말프 로렌 블랙 라펠**, Gentle Brown 브라운 재킷 1백35만원 **휴고 보스**, 화이트 셔츠 98만원 **브리오니**, 자부드 패턴 실크 타이 30만원대 **에르메네집도 제너**, (오른쪽) 체크 패턴 셔츠 38만원, 실크 타이 19만원, 행커치프 10만원대 모두 **휴고 보스**, Double Play 더블브레스트 수트 59만9000원 **폴 포드**, 2중 라펠 셔츠 40만원대 **아이스버그 by 주느세라**, 슬림 타이 20만원대 **다울 울프**, (오른쪽) 체크 패턴 셔츠 80만원, 하운즈투스 체크 타이 32만원, 행커치프 21만원 모두 **폴 포드**, Stripe Strike 스트라이프 재킷 59만4000원대 **루이 비통**, 블루 셔츠 73만원, 타이 43만원 모두 **키튼**, (오른쪽) 기하학적 패턴 셔츠 55만원대, 브라운 니트 타이 24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너**, 행커치프 6만9천원 **로다 코리아**, 에디터 **이예진**

폴 포드 02-6905-3534 **주느세라** 02-515-3151 **다울 울프** 02-518-0270 **로다 코리아** 070-4146-8722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키튼** 02-6905-3787 **말프 로렌** 02-6004-0133 **보스** 02-515-4088 **브리오니** 02-6905-3780 **에르메네집도 제너** 02-2240-6521 **행방 울프** 02-6905-3496 **프라다** 02-3218-5331 **분디남 맨** 02-3444-3300 **올 스티스** 02-3447-0278 **올세판가버나** 02-3444-0077 **루이 비통** 02-3432-1854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ALL-NEW LINCOLN MKZ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 플루이드 모션의 감성이 살아있는 공기역학적인 바디라인과 링컨 스플릿 윙 그릴의 조화는 마음까지 설레게 합니다. 또한, 링컨 MKZ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압도적 스케일의 선루프까지. 이처럼 섬세한 디테일은 아름다움을 넘어,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전혀 새롭게, 당신처럼 완벽해진 올 뉴 링컨 MKZ



lincoln-korea.com

송파	02)6928-3000	방배	02)6929-30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강북	02)2246-2100	강서	02)2063-63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평촌	031)425-2212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부산	051)741-5114	부산영	051)758-0075								

장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링컨 MKZ: 배기량(cc) 1999 공차중량(kg) 1760 지름(mm) 1700 도심연비(km/L) 13.3 고속도연비(km/L) 8.5 고속도연비(km/L) 13.3 등급 4등급 복합연비(km/L) 17.4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080-300-3673, 02197-4357 ※ 전국 25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3 Watches & Wonders

1582년, 리스본에서 마카오 총독에게 기계식 시계를 보내왔다. 이는 중국에 최초로 서양의 시계가 유입된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는 이제 세계 워치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최근 기계식 워치, 고급 시계 매출의 40% 이상이 아시아 시장에서 창출되고 있다. 한껏 달아오른 아시아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에 힘입어 스위스 고급 시계의 위상이 탄력을 받은 지금, 아시아에서 빅 이벤트가 열렸다. 시계의 중추국 스위스에서 최고라 칭하는 13개 고급 시계 브랜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 바로 '워치스&원더스(Watches&Wonders)'가 아시아 워치 시장의 메카, 홍콩에서 개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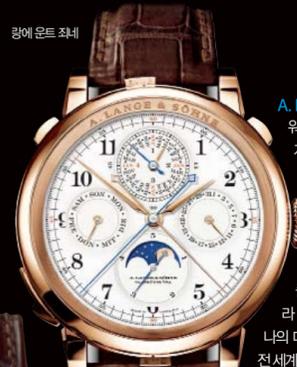
시계 제작 세계로의 초대

똑딱똑딱, 틱톡틱톡,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는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발명품이다. 기원전 2400년경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 하나의 단위에 대해 고민했고, 이 고민이 현재 시간을 나누고 정하는 기준인 60분 단위 체계의 밑바탕이 되었다. 19세기 이전에 발명된 불시계와 물시계, 해시계로 시작해 복잡한 천체 관측 기구와 달력 체계를 거쳐 인간은 더 정확한 시간 측정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공공 건물에 설치된 거대한 기계식 시계를 벽시계로, 벽에 걸린 시계를 손목으로 옮겨 오기 위해 수세기 동안 노력한 결과 손목 시계는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진화했고, 5대륙 모두에서 인기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듯 1초보다 더 작은 단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해지고 현대인들의 삶의 일부가 된 시계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고급 시계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인 아시아를 위해 스위스 고급 시계의 핵심이자 소수에게만 공개되던 '제네바 고급시계박람회(SIHH: 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에서 볼 수 있던 예술적인 타임피스들이 아시아 최초의 고급시계박람회 '워치스&원더스(Watches&Wonders)'에서 선보인 것이다.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홍콩컨벤션 전시센터(HKCEC,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흐름에 주목해 고급 시계 브랜드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13개의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가 참가했다.

아시아를 매료시킨 스위스 고급 시계

대중적인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참여해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시계 박람회는 매년 9월 전후에 개최되는 바젤 월드다. 만일 고가의 기계식 시계, 럭셔리 브랜드만을 모아둔 박람회를 찾는다면 단연 매년 1월 개최되는 제네바 고급시계박람회일 것이다. 최고의 브랜드만을 선별해 브랜드별 부스를 만들고, 해마다 새로운 시계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이때 선보인 시계들을 옮겨 전시한 것이 홍콩에서 개최된 워치스&원더스 박람회다. 1월에 선보인 신제품을 실제로 제작해 대중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통상 8월이기 때문에 더욱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시계는 2012년 중국에 16억, 홍콩 41억, 동남아시아 지역에 24억(단위, CHF: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엄청난 수출액을 기록했기에 올해 홍콩에서 작은 SIHH라 불리는 워치스&원더스 박람회가 최초로 개최된 것은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낸 결과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스위스 시계 수출액은 약 4배 이상 늘었고, 1천5백CHF를 초과하는 고가 시계의 수출액은 280% 이상 늘어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각 브랜드의 수장과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시계 수집가, 감정가가 이 자리를 위해 홍콩을 찾았다는 것은 아시아가 워치 시장의 핵심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계 관련 종사자, VIP 고객과 기계식 시계 마니아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7백50개 미디어를 포함한 1만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대규모 행사로, 고급 시계 제작의 탁월함과 독창성은 물론 각 브랜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이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는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공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40여 명의 시계 제작, 판매, 유약과 보석 세팅 전문가를 비롯한 숙련된 장인들이 시연을 통해 정밀 시계 제작업계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더 의미가 깊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제네바의 고급시계협회(FHH: Fondation de la Haute Horlogerie)의 파비엔 루포(Fabienne Lupo) 회장은 "이번 워치스&원더스 박람회를 통해 시계 명칭과 제작자를 모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었고,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담긴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랑에 온트 작세



A. Lange & Söhne 그랑 컴플리케이션
워치스&원더스를 방문한 이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한 새로운 모델. 브랜드 역사 속에서 가장 복잡한 기능을 장착한 화중시계를 손목시계로 구현한 모델로,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컬렉션이다. 칼리버 L1902 무브먼트는 그랑 스트라이크와 스몰 스트라이크, 마넨 리피터의 차임 메카니즘, 마넨 카운터와 플리잉 세컨즈의 초 분리 크로노그래프뿐 아니라 루 페이즈를 더한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까지 하나의 다이얼에 구현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 전세계 단 67개만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Audemars Piguet 밀라나리 미니트 리피터
전기를 사용하지 않, 소리를 통해 시간을 들 수 있도록 고안한 기능인 미니 리피터. 오디마 피게는 워치메이킹 기술의 최고 경지라 불리는 미니 리피터 워치를 이미 1875년에 선보인 바 있는데, 이러한 브랜드 노하우와 전통을 담아낸 새로운 모델이 바로 밀라나리 미니트 리피터다. 3차원적인 무브먼트에 획기적인 2개의 밸런스 스프링을 보유한 AP 이스케이프먼트와 미니 리피터의 메카니즘이 만난 것. 창의적인 디자인에 핸드와인딩 칼리버 2928을 장착해 시, 분, 초 표시와 미니 리피터 기능까지 갖췄다.

Baume & Mercier

클립튼 1830 매뉴얼

1950년대 황금기에 선보인 뮤직 피스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 브랜드 설립 연도를 의미하는 클립튼 1830 모델은 곡선과 직선 라인을 살린 균형미가 아름답다. 42mm의 볼드한 레드 골드 케이스에는 라 주페레 매뉴팩처의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으며 9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Cartier

뱅크 MC

가르피에는 자사에서 제작한 첫 번째 무브먼트인 1904MC 무브먼트를 브랜드를 대표하는 영원의 상징, 탱크 컬렉션에 장착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44mm 케이스는 탱크 워치 특유의 정방형을 변형한 넉넉한 공간 덕분에 여유가 느껴진다. 사피어 글라스의 투명 백 케이스 덕분에 뒷면으로 메카니컬 무브먼트와 코어의 유연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IWC 포르투피노 핸드와인드 빅 데이터

우아함과 기계식 시계의 매력을 모두 갖춘 포르투피노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 12시 방향에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디스플레이는 독특하면서도 편리하다. 대별한 시야의 날짜 창은 2개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자체 제작 무브먼트 칼리버 59230에 담긴 특별한 덕분에다. 크라운을 끝까지 감으면 1백92시간, 즉 8일간 작동할 수 있는 파워 리저브를 갖췄다. 이탈리아 하이엔드 핸드메이드 슈즈 매뉴팩처 산토니의 독특한 가죽을 사용한 스트랩을 매치해 기계식 시계의 클래식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Jaeger-LeCoultre 마스트 그랑 트레디션 자이로 투르비옹 3 주빌리

브랜드 탄생 1백80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 선보여온 그랑 컴플리케이션 모델에 한정하는 허브리스 메카니즘 시리얼의 열 번째 작품으로 선보인 컬렉션. 플리잉 투르비옹, 블루 골드 밸런스, 구형형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해 첫선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상부 브리지 지를 제거해 마치 소우주를 자유롭게 운영하는 듯한 투르비옹의 모습이 아름답다. 1백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지만 초정량 물질을 만들어 무게가 1그램에 나가지 않는 자이로 투르비옹은 진정한 마이크로 메카니컬 기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Montblanc 빌블레 1858 컬렉션 엑스투르비옹 리트리피팅

회전 케이스 뒤에 위치한 큰 시야의 밸런스, 스텝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골드와 그랑데 에펠레로 제작된 3차원의 레플레티비 다이얼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컴플리케이션들의 결합을 선보이는 워치다. 평범한 다이얼 대신 골드와 에펠레로 장식한 3차원적인 다이얼

디자인은 전통적인 워치메이킹과 선구자적인 장인 정신의 결합이 눈을 사로잡는 워치다. 18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Officine Panerai

루미노르 1950 투르비옹 GMT 세라미카

역사 깊은 이탈리아 브랜드 파넬라이의 독특한 매력을 드러내는 자사 무브먼트를 장착한 스텝레트 워치. 이 워치는 독특한 블랙 세라믹 베젤이 감싸고 있으며 인 하우스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P.2005/S 무브먼트에는 투르비옹을 장착했는데, 이 모든 움직임은 투명한 케이스를 통해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내부의 모든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마치 골격판 남긴 듯 브리지를 표현한 것도 독특하다. 2백77개의 부품을 사용했고 6일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Piaget

엔페라도 쿵빙 울트라-씬 미니 리피터 하이 주얼리

지난 2013년 SIHH에서 선보인 디자인에 주얼리 세팅을 더해 워치스&원더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컬렉션. 피아제의 울트라-씬 노하우와 켈 세팅 기술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정체다. 무브먼트 두께 4.8mm, 케이스 두께 9.4mm로 전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지 이전 미니 리피터와 두께가 같다는 점이 핵심. 새로운 모델이지만 여전히 울트라-씬 분야에서 피아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100% 자체 개발한 무브먼트에 장식, 조립까지 완벽을 기했다.

Richard Mille 투르비옹 팬더

민첩하기로 유명한 동물인 팬더에게 영감을 받은 화려한 디자인의 워치로 RM26-10 투르비옹 칼리버를 장착하고 있다.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블랙 사피어, 블랙 오닉스강렬한 조화를 이루는 이 컬렉션은 예술과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완성했으며 단 15개만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Roger Dubuis 엑스칼리버 리프터 DLC 티타늄

48mm의 거대한 블랙 티타늄 컬렉션. 독특한 차를 컬러 케이스에 수동 기계식 무브먼트인 RD101이 장착되어 있다. 4개의 밸런스 휠을 장착하고 정교하게 조정된 5개의 포지션은 총 9백90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독특한 밸런스를 이룬다. 유니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은 모델로 1백88개만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Van Cleef & Arpels

레이아벨 주 비스트 발랑 포에티 컴플리케이션

시간의 서사시, 시간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존시하는 반클리프 아펠의 워치 컬렉션은 그 모습만으로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 젊은 날 삼과 여성이 하늘에 연을 띄워 사랑을 남기고, 그들의 머리 위로 마치 발레하듯 즐겁게 춤추는 연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머더오브월의 완벽한 조화와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낮에는 연이 날고 있는 하늘을 묘사하고, 밤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다스르가 조금씩 회전하게 했다.

Vacheron Constantin

페트리모니 컴플리케이션 울트라-씬 칼리버 1731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 속에 마법과도 같이 정제된 기술의 마넨 리피터 기능을 장착한 컬렉션. 소리를 내는 기능을 갖춘 이 특별한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기존의 울트라-씬 무브먼트와 큰 차이 없는 3.9mm의 새로운 울트라-씬 칼리버 1731이 새로운 워치의 상징이다. 65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기존 미니 리피터보다 한 단계 발전한 기능이 미묘한 변수까지 고려해 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었다. 이렇듯 복잡한 기능을 갖췄음에도 시계의 두께는 8.09mm에 불과해 시계 예술에 정점을 찍는다. 에디션 배워진



오피스랑



피아제



피아제



리처드밀



로저드브



반클리프아펠



바쉐론 콘스탄틴



오디마 피게



보에 베르시에



에거 르콜트르

Winter Diva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함, 우아하고 고혹적인 터지로 시선을 사로잡는 퍼(fur)의 무한 매력.
photographed by zo sun hi



핑크 컬러의 링크 라운드 코트,
화이트 롱, 지브라 송치 부티
모두 팬디, 네이비와이드
팬츠 아크네, 스와로브스키
진주 이어링 미네타니.



링크스 퍼 재킷 올론보,
블랙 롱 벨벳 드레스 알프리오
아르마니, 진주 이어링 슈엘,
진주 브레이슬릿 디올.



깃털 장식의 시스루 블랙
롱 드레스, 블루 링크 퍼자키
모두 구찌, 진주 이어링 수엘,



베이지 퍼 재킷 랑랑 컬렉션,
화이트 맨조 맨디, 화이트 터틀넥,
네이버 핀 스트라이프 재킷
모두 스텔라 매카트니,
스웨이드 스텔레토 힐 디올.



레오퍼드 퍼코트 생로랑.
 레드 & 네이비 스트라이프 셔츠,
 베이지 & 블랙 스트라이프 팬츠
 모두 버버리 프로섬. 트위드 스트랩
 펌프스 프로엔자 슬러, 볼드한
 네크리스, 블랙 스와로브스키링
 모두 스와로브스키.



레드 롱 드레스, 레드 폭스 퍼 재킷
 모두 21 트레이. 블랙 스티드
 스티레트 원 크리스찬 루루탱,
 블랙 크리스탈 이어링,
 스와로브스키, 블루 칼테일 힐,
 몬다나 그린 링, 블랙 눈꽃 링
 모두 미네테니.

주얼 장식 벨벳 이브닝드레스,
 화이트 사탕콩 파제킷,
 모두 랄프 로렌 컬렉션.



라군 그레이퍼롱 코트 21 드레이,
 블랙 파이론 레더 터틀넥 구찌,
 실버 팬츠 마이클 코어스, 지브라
 송치 오픈토 부티 주세페 자노티,
 개츠비 아이링, 개츠비 링,
 블루 카테일링 모두 미네타니.



헤어 강현진
 메이크업 이지영
 모델 이영진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혜민
 에디터 권유진

21 드레이 02-511-2190
 구찌 1577-1921
 마이클 코어스 02-546-6090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미네타니 02-3443-4164
 생 로랑 02-3438-7627
 버버리 프로섬 02-3485-6583
 프로엔자 슬러 02-310-1814
 스와로브스키 02-3395-9096
 펜디 02-2056-9023
 이크네 02-3479-6249
 랑방 컬렉션 02-3438-6260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다울 02-513-3232
 랄프 로렌 컬렉션 02-545-8200
 수엘 02-3444-1708
 크리스찬 루부탱 00-000-000
 클롬보 02-516-9517
 엘프리오 아르마니 02-549-3355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1 해밀턴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론 켈트, 해밀턴 재즈마스터 레귤레이터. 2 2011년에 선보인 해밀턴 H-31 무브먼트. 3 해밀턴 자체 개발 독점 무브먼트인 H-12를 장착한 재즈마스터 레귤레이터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 4 꽃에서 영감을 받은 해밀턴 재즈마스터 뷰메틱. 이지 클릭 스트랩으로 스트랩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

Innovative movements

열정과 장인 정신, 디자인과 기능의 조화를 핵심으로 삼는 해밀턴. 올해 바젤 월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무브먼트 두 가지는 해밀턴의 정수를 담고 있다. 브랜드의 비전을 보여주는 2개의 심장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따라서

18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에서 창립한 해밀턴. 미국인의 개척 정신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신 스위스 무브먼트 기술을 접목한 시계를 선보이는 해밀턴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4백여 편의 영화에 제품을 출연시키며 할리우드에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항공 역사와 그 발자취를 같이하며 항공 워치 브랜드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해밀턴에서 그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유니크한 디자인이다. 타 브랜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드라마틱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디자인의 워치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이 원동력은 바로 꾸준히 새로운 무브먼트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의미 없이 외부적으로 화려한 디자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 구조 자체를 독특하게 고안해,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자체에 특별함을 부여하기에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위치를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무브먼트를 선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해밀턴은 브랜드 고유의 유니크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무브먼트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올해 선보인 H-20-S와 H-12 무브먼트다. 이보다 먼저 2011년에 선보인 60시간 파워 리저브 무브먼트인 H-21과 H-31은 이미 해밀턴의 다양한 베스트 컬렉션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데, ETA 7753/7750 크로노그래프 밸루 무브먼트에서 유래한 모델이다. 배럴과 메인 스프링까지 새롭게 고안했기에 더욱 정교하다. 또 파워 리저브를 기존의 4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 신뢰도와 정확성을 극대화했다. 오토메틱 브리지 장치에 해밀턴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식을 적용해 더욱 강렬한 느낌을 준다.

해밀턴의 새로운 심장, H-20S와 H-12

앞서 설명한 기존의 무브먼트인 H-21과 H-31에 이어, 올해 바젤 월드에서 정확성을 높인 새로운 무브먼트, H-20-S와 H-12를 선보였다. 먼저 H-20-S 무브먼트는 장인 정신과 정확성을 결합한 스키텔론 무브먼트다. 무광 처리한 개방형 로터를 통해 각 부품에 새긴 복잡한 H 패턴 등 현대적인 디자인은 무브먼트 본연의 정밀성을 돋보이게 한다. 이 무브먼트는 올해 선보인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론의 여성용과 남성용 버전에 장착되어 첫선을 보인다.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오픈 다이얼 디자인의 위치에 담겨 있는 H-20-S 무브먼트의 모습은 멋진 배럴 드럼과 메인 브리지가 표현하는 시간의 미학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편 해밀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귤레이터 무브먼트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바로 H-12 무브먼트다. 1890년 '철도의 정확성에 기여한 시계에 잘 알려진, 해밀턴을 상징하는 레귤레이터 컴플리케이션을 모티브로 하며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현대적인 요소를 더한다는 목표로 만들어 낸 것이 H-12 무브먼트인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독창적인 방법을 창조해 세계 제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무브먼트이기에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독창적이다. 각각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리 배치한 시계 침 3개의 모습은 물론, 중앙에서 벗어난 시침과 초침이 비대칭을 이룬 혁신적인 디자인은 해밀턴의 심장이자 핵심이라 할 만하다. 문의 02-3149-9593 에디터 배미진



2



3



4



the most Fabulous

세계에서 가장 멋진 보석의 또 다른 이름, 바로 그라프다. 지난 8월 국내에 첫발을 내딛은 후 최고의 원석으로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라프가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최고의 원석으로 만든 2013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희소성, 아름다움, 탁월함으로 대변되는 최고의 다이아몬드만 고집하는 그라프. 다이아몬드의 채굴과 폴리싱, 장인들이 직접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완성 단계까지 주얼리 메이킹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기업인 그라프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격조 높은 브랜드다. 그라프의 설립자인 로렌스 그라프 회장은 하이 주얼리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성과 혁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퀄리티가 높은 다이아몬드일수록 다른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아닌, 로렌스 그라프의 손을 거친다는 사실은 이제 주얼리 업계에서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 선보이는 주얼리 중 주목해야 할 것은 18캐럿 D FL(flawless, 다이아몬드 내외에 아무런 결점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이어링으로, 그라프가 전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큰 화이트 다이아몬드인 5백50캐럿 레츠엡 스타(Letseng Star)를 커팅하고 세공해서 만든 디자인이다. 또 나비가 날개를 펼친 순간을 포착해서 만든 버터플라이 컷트 역시 매력적인데, 라운드, 마키즈, 페어 셰이프 등 총 104.4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

최고의 럭셔리, 그라프의 헤어&주얼 컬렉션

그라프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헤어&주얼(Hair & Jewel)' 컬렉션이다. 그라프는 1970년 1백만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헤어 장식 컬렉션을 선보인 바 있는데, 올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그라프는 헤어&주얼 컬렉션을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22개의 진귀하고 유니크한 주얼리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유니크함을 생명으로 하는 그라프의 명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 컬렉션을 위해 그라프는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세공했는데, 51.53캐럿과 50.76캐럿 D컬러 FL 하트 셰이프 다이아몬드 한 쌍을 이어링으로 만들어 '그라프 스왓하츠'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선보인다. 실제로 이 이어링에 사용한, 레츠엡 광산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각각 1백96캐럿, 1백84캐럿에 달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커팅, 폴리싱에 관련한 분석을 거쳐 환상적인 하트 셰이프 다이아몬드로 재탄생한 것이다. 서로 다른 2개의 원석에서 5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이어링 한 쌍이 탄생한 것은 유례없는 일하기에 그라프의 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로렌스 그라프는 1970년에 탄생한 오리지널 헤어&주얼에 대해 언급하며 "그 당시 상당히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세계 주요 신문과 잡지에 실렸다. 또 다른 파인 주얼리 비주얼과 달리 젊은 모델을 사용해 기존의 틀을 깨고, 다이아몬드가 젊은 여성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최초의 헤어&주얼 오리지널 비주얼이 등장한 지 약 40년이 넘는 올해, 새로운 버전의 탄생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역사에 중요한 지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 세계 마흔 번째 매장 오픈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광고 비주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특별한 컬렉션은 그라프의 장인 정신과 성공을 상징한다. 특유의 독자성과 퀄리티에 대한 남다른 집념을 갖고 있는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를 통해 새로운 주얼리의 비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2256-6810 에디터 배미진



5



7



8

1 그라프 다이아몬드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 이미지. 총 9백90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주얼리 피스를 공개했다. 2 6.51캐럿 오벌 핑크 다이아몬드 링. 3 핑크 골드 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리워브로치. 4 10.47캐럿 브라올레트 다이아몬드 펜던트. 5 5캐럿러 상당의 진귀하고 유니크한 2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버전의 헤어&주얼 컬렉션 이미지. 6 52.73캐럿 비비드 옐로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링. 7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서로 다른 2개의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그라프 스왓하츠 이어링. 8 세팅이 정교한 다이아몬드 버터플라이 브로치.

brilliant Holiday

매년 특별한 모습으로 기대를 모으는 SK-II의 정수이자 상징, '페이셜 트리트먼트 리미티드 에디션'이 연말을 앞두고 어김없이 돌아왔다.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의 아름다운 크리스털 스톤을 입은 패키지와 손거울로 화려함을 더한 홀리데이 컬렉션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K-II만의 특별한 홀리데이 컬렉션

나이 든 사계 주조사의 아끼처럼 고운 손을 유연히 관찰한 데서 비롯된 피테라™ 성분을 그대로 담아낸 SK-II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브랜드의 독자적인 피테라™ 성분은 3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전 세계 여성들에게 맑고 투명한 피부 기적을 선사해왔다. 피테라 에센스를 한번 써본 이들은 전 라인을 SK-II로 바꿀 만큼 제품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덕분에 특별한 날에 가장 받고 싶은 화장품으로 꼽히고 있다. SK-II는 이러한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매 시즌 피테라 에센스의 대용량 점보 사이즈부터 베스트셀러 세트, 피테라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구성과 기획으로 선보이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연말이면 등장하는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빼놓을 수 없다. 광채가 도는 건강한 피부아말로 그 어떤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보다 빛이 나는 법.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아름답게 돋보이고 싶은 여성을 위해 탄생한 리미티드 에디션은 매년 예상치 못한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베이션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SK-II의 충성도 높은 고객은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이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용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2011년 처음 선보인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파리의 패션 하우스이자 뷰티 제품, 향수 컬렉션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로사스와의 콜라베이션이 그 시초다. 당시 빅 코즈메틱 브랜드와 패션 디자이너의 협업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골드 플러워 모티브를 프린트한 보틀과 패키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으면서 로사스의 패션 세계를 그대로 담아내 주목받았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2년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와의 협업으로 물방울 모티브의 크리스털 목걸이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와 함께 구성했으며, 그해 연말에는 또 한 번 로사스의 수석 디자이너 마르코 자니니(Marco Zanini)의 지휘 아래 크리스마스 시즌의 빛과 생기 넘치는 반짝임을 표현한 보틀로 더욱 고급스럽고 우아해진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거듭났다. SK-II의 오랜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출시한 리미티드 아이템을 모두 소장할 정도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컬렉션으로 손꼽히고 있다.

SK-II,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의 아름다운 빛을 입다

연말을 앞두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바람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심플한 비전에서 시작한 페이셜 트리트먼트 리미티드 에디션의 2013년 컬렉션이 공개됐다. 콜라베이션의 주인공은 지난해 첫 만남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 피부 기적을 선사하는 SK-II의 상징인 피테라™ 성분과 혁신적인 크리스털 커팅, 눈부신 스톤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의 장인 정신을 결합한 두 번째 조우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SK-II를 상징하는 비건디 컬러 보틀에 '실리온(Xilion™)' 커팅한 크리스털 스톤을 모던하게 장식했다. 2004년에 처음 소개된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의 혁신적인 실리온 커팅은 다양한 크기의 면이 빛의 굴절을 향상시켜 광채를 극대화하는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크리스털 커팅.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실리온 커팅과 SK-II의 가장 큰 유산인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의 만남으로 빛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용량 사이즈로 선보이는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함께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 크리스털로 장식한 손거울도 함께 구성해 더욱 매력적이다. 심플한 형태와 빛나는 크리스털의 감각적인 조합은 물론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 쉽고 실용적이니 소장 가치가 높을 수밖에. 215ml 19만원대. 문의 080-023-3333 **에디터 이예진**



2012년 리미티드 에디션

2013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 & 크리스털 손거울

eternal Feminine

언뜻 스쳐 지나간 낯선 이의 향에 고개를 돌려본 적 있는가. 그만큼 향은 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억과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한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향의 샤넬 N°5는 성숙하고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여성용 향수다. 다가오는 12월, 이 매력적인 향에 흠뻑 빠져들게 할 N°5 홀리데이 컬렉션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관능미의 찬가, 샤넬 N°5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히 달아내어 그 정수만 남겨두는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당시 가브리엘 샤넬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21년 자신이 만든 향수 N°5가, 반세기 가 넘는 긴 세월 동안 전설의 향수로 칭송받으며 전 세계 여성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프랑스 시인 말라르메가 '어떠한 꽃에도 존재하지 않는 향이라고 묘사한 우아하고 미니멀한 향취의 N°5는 단순히 베스트셀러 향수가 아닌 가브리엘 샤넬의 사랑과 화상, 기억, 그리고 수많은 영감의 원천을 담은, 향수 역사 속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브랜드의 아이콘이다. 패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대담함과 조형사 아르네스트 보의 조우로 탄생한 이 향수는 당시 향수의 역사와 트렌드의 판도를 뒤바꿀 만큼 센세이션얼했다. 화학 향료인 알데하이드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이는 그 어떤 꽃이나 원료에서도 맡을 수 없는 세련되고 프레스한 향이었던 것. 여기에 마치 추수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듯 4월의 일랑유랑, 5월의 장미, 9월의 그라스 재스민을 차례대로 배열하면서, 이 모두를 바닐라에 정성스레 감싼 후 베티 베르로 증폭시켜 N°5를 뿌리는 모든 여성에게 강력한 후각적 여운을 남긴다. 사용한 여덟 가지 향료 중 어느 하나도 뚜렷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추상적인 향이 돋보이는 데, 여기에 그 어떤 향수에도 다른 불가해하면서 세련되고 진정한 여성의 향을 완성된 샤넬의 비법이 담겨 있다. 그녀는 "나는 여성들에게 마치 옷처럼 인간이 창조한 향을 선물하고 싶다. 패션의 장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건 장미나 골짜기에 핀 백합의 향이 아닌, 인공적인 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샤넬은 화구하고 추상적이며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이 향수를 표현하기 위해 실험실 기호와 그루에겐 행운의 숫자이기도 같은 '5'를 더해 N°5라는 이름을 붙였고, 남성적이면서도 우아한 투영 우리 보틀에 담아 비로소 N°5를 시대를 초월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설적인 향수로 남게 했다.

가장 우아한 순간

잠잘 때 샤넬 N°5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다고 한 메릴린 먼로. N°5의 향을 경향해본 이라면 그녀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할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가장 우아하고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N°5의 마법과도 같은 힘은 잠들 때조차 곁에 두고 싶은 법이니 말이다. 샤넬은 이 완벽하고 전설적인 향수의 트레인을 언제 어디서나 오랜 시간 지속시켜줄 '포밍 베이스', N°5 클렌징 크림으로 구성된 베이스 라인과 피부에 부드러운 터치와 은은한 향의 배움을 더하는 단계인 N°5 보디로션, 바람에 흩날리는 머릿결에서도 N°5의 향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한 N°5 헤어미스트와 피부를 매끈하고 부드럽게 감싸줄 N°5 인텐스 베이스 오일로 구성된 감각적인 라인으로 구성했다. 세 가지 향을 입는 이 특별한 단계를 통해 모든 감각 기관을 N°5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특히 샤워 후 몸 전체에 비벼거나 목욕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우아하고 활기로운 베이스 타임을 선사하는 인텐스 베이스 오일은 이번 시즌에만 만날 수 있는 한정 상품으로, N°5를 사랑하는 마니아라면 꼭 소장할 일 권한다. 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아함을 간직하고 싶은 나를 위해, 혹은 사랑하는 연인과 소중한 지인을 위해 올겨울 N°5 홀리데이 컬렉션은 또한 나위 없이 값진 선물이 될 것. N°5 포밍 베이스 200ml 6만13천원, N°5 클렌징 크림 200ml 6만2천원, N°5 보디로션 200ml 7만1천원, N°5 인텐스 베이스 오일 250ml 12만원, N°5 헤어미스트 40ml 5만7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피부만 생각하는 냉장 화장품, 프로스틴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니, 너무나 궁금하다. 냉장고에 넣으면 '더 좋은' 화장품이 아닌, 반드시 냉장고에 넣고 사용해야 하는 화장품, 바로 프로스틴(Frostine's)이다. '유해 성분을 전혀 넣지 않은 안전한 화장품'을 없을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해 피부에 좋은 것만 남기고 다 빼버린 방부제 없이 가장 안전한 화장품,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냉장 기술이다. 살아 있는 생명력을 보존하는 저온 기술을 연구해 3~7°C에서 냉장 보관했을 때 화장품 성분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에 착안, 프로스틴을 탄생했다. 유통기간도 개봉 전 8개월, 개봉 후 8주 안에 사용해야 할 만큼 짧다. 단순히 새로운 콘셉트를 위해 냉장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제품을 방부제를 넣지 않은 데다 냉장 상태로 배송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까지 새롭게 구축했다. 유해 성분 0%인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갖추고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만들게 된 것. 하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화장품 냉장고가 아닌, 가정용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개발했기에 더욱 편리하다. 아침에 차갑고 시원한 물 한 잔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막 세우고 나온 깨끗한 피부에 오로지 유효 성분만 담은 순수한 화장품을 통해 유해 성분은 빠고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직 프로스틴만이 할 수 있는 순수 비타민 C 15%의 피부 광독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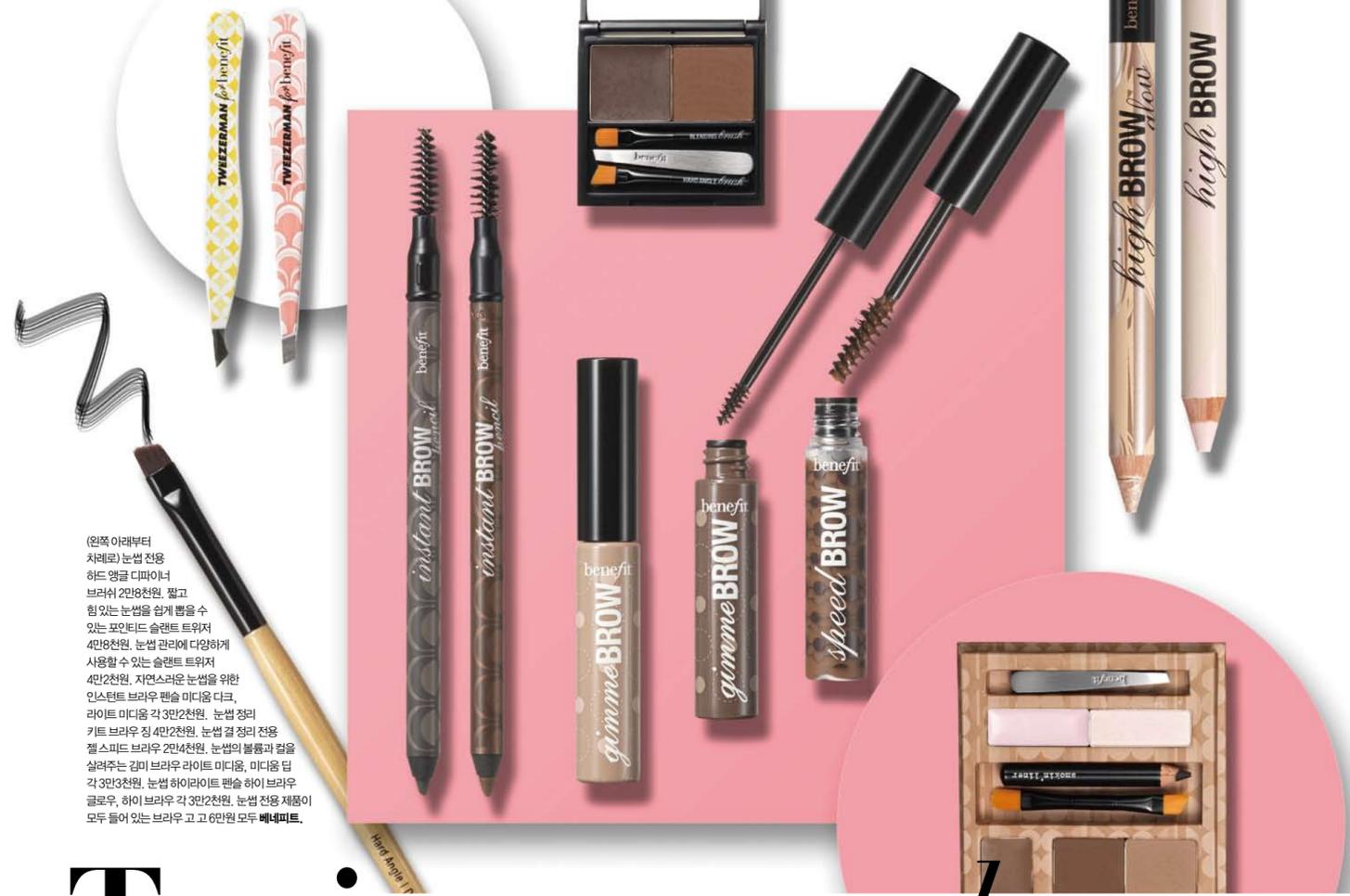
비타민이 피부에 좋은 것은 모두 잘 아는 사실. 문제는 비타민 C가 빛과 열, 온도에 취약해 피부에 전달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35°C에서 비타민 함유량이 4시간 만에 0%가 될 정도로 온도에 매우 취약하다. 프로스틴은 이 모든 조건에 월등히 뛰어난 냉장 화장품인 만큼 비타민 C를 안정화해 효과를 얻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4~5°C에서는 함유량이 100% 유지되기 때문이다. 프로스틴의 모든 제품 패키지는 2중, 3중으로 고안되어 있고, 제품 보관부터 배송까지 냉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타민 C 성분을 일반적인 화장품의 몇 배나 담고 그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레몬 30개, 오렌지 35개 분량의 고농축 비타민 C를 함유한 비타민 C 컨센트레이트를 4주간 사용한 30~50대 여성 23명은 일명 '광독소' 효과로 불리는 놀라운 인색 개선과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매일 막 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듯, 매일 순수한 비타민 15%를 담은 신선한 크림을 피부에 바른다면 칙칙한 인색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주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이제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고, 싱싱하게 담겨 있는 비타민 C 크림을 얼굴에 비르는 상상을 하자. 그 싱그러움 느낌, 신뜻한 텍스처, 인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피부를 더 아름답고 생기 넘치게 만들어줄 것이다. 문의 080-023-7007, www.frostine.com 에디터 배미진



주름과 미백의 2중 기능성 인종을 받은 비타민 C 컨센트레이트 25ml 5215천원.

fresh Beauty

여기 방부제 없이 매일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화장품이 있다. 가정용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냉장 화장품 프로스틴이다. 유해 성분 0%, 여기에 순수한 비타민 C만 더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화장품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차례로) 눈썹 전용 하드 앵글 디자이너 브라쉬 2만8천원. 쫄고 힘있는 눈썹을 쉽게 뽑을 수 있는 포인티드 솔렌트 트위저 4만8천원. 눈썹 관리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솔렌트 트위저 4만2천원. 자연스러운 눈썹을 위한 인스턴트 브라우 펜슬 미디움 디크, 라이트 미디움 각 3만2천원. 눈썹 정리 키트 브라우 징 4만2천원. 눈썹 결 불륨과 결을 살려주는 감미 브라우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딥 각 3만3천원. 눈썹 하이라이트 펜슬 하이 브라우 글로우, 하이 브라우 각 3만2천원. 눈썹 전용 제품들이 모두 들어 있는 브라우 고 고 6만원 모두 베네피트.

Taming your eyebrows

눈썹 산이 없는 눈썹, 짝짝이 눈썹, 술이 적은 눈썹, 하늘로 솟아오른 방사형 눈썹까지. 눈썹에 대한 갖가지 고민을 시행착오 없이 해결해줄 베네피트 브라우 바를 3주마다 찾아 세 번의 확신을 받았다. 꼭 한번 경험해보아야 할 베네피트 브라우 바에서 눈썹 길들이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브라우 바가 뭐지?

브라우 바는 눈썹을 의미하는 '브로우(brow)', 서비스를 받는 카운터를 의미하는 바(bar)를 더해 만든 단어. 화장품 브랜드 베네피트가 백화점 매장에서 운영하는, 눈썹을 관리해주는 공간의 이름이다.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는 37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금은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브라우 바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나는 아직 한번도 안 가봤는데?'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가 입점된 백화점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백화점의 꽃인 1층에 매장을 내고, 꽤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적당 높은 매출이 보장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 매장을 유치하려는 백화점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브라우 바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오전 10시 30분, 이른 시간 백화점을 찾았음에도 대부분 예약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의를 하는 여성들도 눈에 띄는 정도. 브라우 바에서 이루어지는 눈썹 관리가 지난 2~3년 사이에 '대중적인' 서비스가 되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다. 브로우 확신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될 만큼 매력 넘치는 서비스인 것. 사실 미용실이나 확신 숄에서도 눈썹을 관리할 수 있지만,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보다 안정적이고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는 물론 시술하는 전문가들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 때마다 직원이 바뀌는 미용실이나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확신 숄과는 달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에 확실히 믿음이 간다.

베네피트 브라우 바에서 눈썹 길들이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브라우 바를 꾸준히 찾을까?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경우 가장 까다로운 타깃층인 20대 후반~30대 여성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다.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는 뷰티 브랜드 최초로 눈썹 관리 공간을 만들었고, 국내에 오픈하기 30년 전부터 일찍이 전 세계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눈썹은 길들이기 나름이다. 필자를 바꾼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로 눈썹은 얼굴, 즉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베네피트 브라우 바에서는 산이 없는 눈썹

도, 아래로 처진 눈썹도 원하는 형태에 가깝게 디자인해준다. 매장을 방문하면 눈썹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뭘지 브라우 엑스퍼트와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잡지를 오려 오거나 핸드폰에 사진을 저장해서 들고 오는 사람도 많은데, 막연히 원한다고 해서 똑같이 해주기보다는 얼굴형과 이마 폭, 눈 모양 등에 따라 각자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조율해준다. 이를테면 산을 강조한 아치형 눈썹을 원한다고 해도 눈이 튀어나온 편이라면 단점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에 높이를 조절하는 식이다. 살짝 처져 내려오거나 일사 눈썹에도 산을 만들 수 있는 물음에 브라우 엑스퍼트는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단,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닌 3주마다 네 번 정도 모양을 다듬으면 원하는 형태로 눈썹을 길들일 수 있다. 눈썹 아래 처진 부분을 정돈해 각도를 서서히 올리며 자리를 잡아가는 데는 몇 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 눈썹 결과 자라는 방향, 형태를 바꾸어 눈썹을 원하는 느낌대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여성들도 브라우 바에 매혹되고 꾸준히 방문하게 된다. 또 브라우 바 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눈썹 관련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게 변신할 수 있다. 눈썹의 베이스를 만들어줄 파우더 브라우징, 눈썹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은 브라우 키트인 브라우 고 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인스턴트 브라우 펜슬, 눈썹 형태에 포인트를 줄 하이라이트 펜슬 하이 브라우, 고전 영화 배우처럼 눈썹 결을 살려줄 스피드 브라우는 모두 베네피트의 베스트셀러다. 최근에는 눈썹에 볼륨과 컬러를 더해주는 눈썹 볼륨 마스카라 '감미 브라우'를 출시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제품이다. 밝은 색과 짙은 색 중 선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눈썹뿐 아니라 염색 모발에도 어울리는 눈썹 컬러를 연출할 수 있다. 인위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본래 풍성한 듯 어려 보이는 눈썹을 완성할 수 있기에, 감미 브라우를 바르는 순간 눈썹의 텍스처가 달라지고 얼굴 전체가 안개를 걷어낸 듯 선명하게 연출된다.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 서비스를 받아온 이들은 스스로 눈썹을 관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세계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눈썹 확신뿐 아니라 입술 주변을 환하게 해주는 립 왁싱까지 함께 한다면 그 매력은 거의 중독적이다. 눈물이 절끔 나는 걸 참으며 뽀는 셀프 눈썹 관리의 이제 있고, 매력적인 눈썹으로 깔끔한 인상을 만들어줄 브라우 바의 세계에 입문해보자. '지금까지 예 이걸 몰랐을까' 하는 신선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80-001-2363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Only for you

특별한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 선물 박스를 가득 실은 차에서 멋진 남자가 선물을 한 아름 들고 당신에게 다가온다. 이는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조 말론 런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다. 조 말론 런던의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입한 고객에게 기프트 카로 직접 전달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로맨틱한 서비스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배우 엄지원. 그렇다면 그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나만의 향을 레이어링하다

누구나 특별한 나만의 것을 원한다. 특히 그것이 향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향기가 좋다'라는 말은 그 어떤 칭찬보다 달콤하지 않던가. 나의 향취가 남에게 특별한 향으로 기억되는 건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다. 향에 대한 취향이 나날이 까다로워지면서 요즘엔 나만의 향수, 공간을 위한 홈 프레그런스가 소수의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한국에서도 특별한 날 향조를 선물하거나, 나만의 공간을 위해 룸 퍼품을 구매하는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니치 향수와 룸 프레그런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고 있는데, 사실 이런 관심이 '조 말론 런던'이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두꺼운 애호가층이 형성된 조 말론 런던은 향수, 스킨케어, 홈 프레그런스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브랜드. 남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 블랙 리본의 럭셔리한 기프트 패키지는 소중한 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혹은 나 자신을 위한 즐겁고 감각적인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특히 우아한 품격이 느껴지는 매장에서는 스타일리스트가 럭셔리한 보디 크림과 로션을 사용해 개개인 원하는 향을 준비해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이미지와 기분, 특별한 룩이나 행사에 따른 향을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프레그런스 콤바이닝(Fragrance Combining)', 즉 향수 레이어링 트렌드 역시 조 말론 런던이 제안한 독특한 향수 사용법이다. 이는 스스로 조합사가 되어 각기 다른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향수와 베스 오일, 보디로션을 서로 믹스 매치하면서 나만의 향을 찾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향수를 한번 뿌리고 말린 다음 다른 향수를 그 위에 뿌려주는 것. 또 다른 방법은 베스 오일을 사용한 후 그 위에 럭셔리한 보디 크림을 덧발라 향을 레이어링하면 된다. 이는 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물론 향을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을 만들 수 있어 매력적이다. 더불어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찾아 믹스를 시도해보면 향수를 사용하는 재미와 특별함을 느낄 수 있을 것.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로 전달받는 마법 같은 선물

영국 윌리엄 왕자가 결혼식 당일 케이트 미들턴에게 조 말론 런던의 향수와 캔들을 선물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만큼 조 말론 런던의 제품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소중한 지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이다. 조 말론 런던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더욱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 배송 서비스다. 상상해보자. 조 말론 런던의 선물 박스를 가득 실은 차에서 멋진 남자가 선물을 한 아름 들고 내린다면? 이 특별한 선물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선물의 첫 번째 주인공 배우 엄지원은 "크리스마스에 로맨틱한 조 말론 런던의 박스를 선물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에서 받은 조 말론 런



던의 크리스마스 박스를 여는 순간의 설렘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영화 속에서도 볼 법한 깜짝 이벤트는 그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여섯 가지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멋진 젠틀맨이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를 타고 직접 전달하는 이 로맨틱한 서비스는 12월 한 달간 조 말론 런던이 준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동화 속 마법의 나라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컬렉션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코롱 컬렉션과 스트라이프 패턴의 패키지가 돋보이는 한정 아이템. 이를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로 제품을 직접 배송한다고 하니 특별한 선물을 원한다면 서두를 것. 또 11월 29일엔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팝업 부티크 오픈을 축하하며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으니 기대해도 좋다. 문의 02-3440-2750 **에디터 권유진**

〈조 말론 런던〉과 함께 하는 스페셜 이벤트

- Event 1 조 말론 런던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 배송 서비스**
12월 한 달간 조 말론 런던 서울 지역 오프라인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를 통해 제품을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단, 배송 예약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Event 2 11월 29일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조 말론 런던 팝업 부티크 오픈**
조 말론 런던 부산점 오픈을 기념해 오픈 첫날 조 말론 런던 콘셉트의 초콜릿을 증정합니다. 이월 인그레이빙 서비스도 선보이니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와 캔들을 완성해보세요.

피부 광채를 깨우는 첫 번째 터치, 르 세럼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 한번 써보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스킨케어, 바로 플레드보 보떼다. 럭셔리 코즈메틱 브랜드로 오래도록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 깊은 브랜드로 정재계 인사들, 취향이 까다로운 여성들이 꾸준히 사용하는 브랜드다. 플레드보 보떼의 스킨케어를 사용해본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스킨케어 제품의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안정감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패키지부터 흡수력과 발림성이 훌륭한 텍스처, 우아한 향기. 오랜 정통성을 갖춘 클래식한 브랜드이기에 흠 잡을 곳 없이 뛰어난 밸런스가 특징이다. 좋은 와인을 마실 때 느끼는 만족감과 비슷한 느낌일 것이다. 수년 전 플레드보 보떼의 CEO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최고를 위해 그 어떤 것이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밝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제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플레드보 보떼의 VIP 리스트는 고객이 운명을 달라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것도 이러한 브랜드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르 세럼은 플레드보 보떼를 대표하는 라 크렘트와 같은 라인으로 출시한 세럼이다. 피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빛을 발하도록 하는 '뉴로 스킨 이론(Neuro Skin Theory)'을 도입해 스킨케어 전체를 리뉴얼한 후 피부 과학 분야에 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은 플레드보 보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 선보이는 제품이다. 매일 아침 피부에 각성 효과를 준다는 콘셉트의 르 세럼은 클렌징 후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바르는 퍼스트 세럼으로, 고농축된 영양 성분을 피부 속에 전달한다. 피부의 힘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세포 안에 담겨 있는 고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럭셔리 세럼인 것이다.

궁극의 촉촉함, 스트레칭한 듯 유연한 피부

르 세럼을 바르자마자 느낀 것은, 놀라우리만큼 촉촉하다는 것이다. 마치 물이 주욱 흐르는 것처럼 단 한 번 펴땀혔을 뿐인데 얼굴 전체에 퍼바르고도 남을 만큼 수분감이 충전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펴땀혔을 양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동전보다 작은 양 입에도 제형이 피부 전체에 퍼지는 느낌이 시원하고 상쾌해 마치 여러 번 덧바른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플레드보 보떼에서는 이 텍스처를 마치 그물을 펼쳐듯 얼굴 전체에 완벽하게 스며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 일반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촉만감이 부족해 여러 번 덧바르는 경우도 많은데, 르 세럼은 단 한 번의 펴땀혔으면 충분하다. 말 그대로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텍스처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피부 속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 텍스처가 이토록 훌륭하기에 바르자마자 피부 상태가 유연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마치 얼굴 피부를 스트레칭한 듯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를 바를 때 훨씬 더 빠르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이 느껴진다. 수많은 부스팅 에센스, 토너가 있지만 피부의 유연성, 피부를 팽기한다면 르 세럼이 단연 최고다. 수치적으로도 피부의 유연성이 20%가량 상승한다니 단지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피부에 달라붙는 듯 친숙한 텍스처 덕분에 피부가 즉각적으로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얼굴을 감싸는 향기 역시 매력적이다. 강렬한 향기가 아닌, 천연 로즈와 희소한 난에서 추출한 은근한 꽃향기가 얼굴을 감싸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매일 아침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다시 발라야 할 것 같은 건조한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텍스처에 완벽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플레드보 보떼의 르 세럼을 추천한다. 르 세럼 40ml 35만8천원. 문의 02-3438-6032 **에디터 배미진**

First touch

플레드보 보떼 스킨케어를 대표하는 라 크렘트의 뒤를 이어, 피부에 첫 번째로 바르는 르 세럼이 새롭게 선보였다. 사용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텍스처와 효과에 대한 이야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 고급스러운 우드 소재 시가 케이스 5백40만원대 루이비통, 악어 가죽 행렛 1천5백만원대 콜롬보, 정교한 곡선 형태의 부메랑 70만원대 에르메스, 악어 가죽 케이스에 담긴 내일 케어 키트 2백50만원 톨 포드, 골드와 블랙의 세련된 컬러 매칭이 돋보이는 줄넘기 23만원 알렉산더 왕, 모사리에 실버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수첩 11만원 알렉산더 왕, 시디아노 가죽 케이스에 담긴 여행용 저울식 세트 30만원대 프라다, 심플한 타이핀 생 로랑 32만5천원, 송이 자개죽 보디와 산토스 컬렉션의 상징인 스크루 장식이 포인트인 연필꽂이 60만원대 까르띠에, 동물 머리를 장식한 구두주걱 31만원 파스퇴리 by 비커 스토어, 포커 케이스 20만원대, 청색색 가죽 아이폰 케이스 60만원 모두 에르메스, 그 위에 놓인 왼쪽 카프스 링크는 펜더 드 까르띠에 컬렉션으로 3천3백만원대 까르띠에, B로그가 시선을 끄는 블루 커프스 링크 1천1백만원대 브레게 골드 레이터 샌드30만원 S.T. 듀롱, 산토스 컬렉션의 페이퍼 나이프 50만원대 까르띠에, 올해 몽블랑 문화 예술 유산자상 편인 푸도비코 스포츠차 민트 1천2백만원 몽블랑, 신상 컬러 만든 시가 컷터 80만원 톨 포드, 세라미 소재의 시가 재떨이 크 사이즈 80만원대, 작은 사이즈 3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작은 재떨이 위에 놓인 골드 미니 클럽 6백20만원 톨 포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러브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미니멀한 원형 문보기 5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에디터 이예진

루이비통 02-3432-1854 콜롬보 02-511-2192 에르메스 02-544-7722 비커 스토어 02-2266-0208 까르띠에 02-544-2314 브레게 02-6905-3571 몽블랑 02-3485-6827 톨 포드 02-6905-3534 알렉산더 왕 02-3446-7729 프라다 02-3218-5331 생 로랑 02-3438-7627 S.T. 듀롱 02-6905-3764

Luxury required

스치듯 지나가는 찰나의 경험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에게 특별한 패션 소품이 선사하는 럭셔리한 순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링: 김민정



완벽주의 디자이너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디지털존 디자인팀 팀장 이정민 님(경력 8년)



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 디렉터가 경탄했습니다.

예강 분장프로덕션 대표 이현주 님(경력 4년)



최고 지성의 교수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S대학 교수 김용선 님(경력 10년)

무엇이 이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을까요?

inpres X C's

“아마하 골프 클럽에 대한 믿음이 제 스윙의 안정감이고, 아마하 골프 클럽의 경쾌한 타구감이 제 스윙의 자신감입니다.”

S대학 교수

김용선

“저는 이상하게 아마하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장비임에는 틀림없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쓰는 시니어채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타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하의 첫인상은 견고하고 탄탄하며 짱짱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툭 쳤을 뿐인데 ‘탕~’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공이 뻗어나가더라고요. 그 첫 느낌만으로 아마하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주)디지털존 디자인팀 팀장

이정민

“드라이버의 경쾌한 타구음은 그 어떤 드라이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망설임 없이 아마하 C's 드라이버로 결정했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롱기스트라는 골프 인생 최초의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언까지 아마하 C's로 교체했고, 스윙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예강 분장프로덕션 대표

이현주

아마하 C's를 선택한다는 것. 이는 분명 당신에게 최고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CHANEL

FINE JEWELRY

ULTRA

RINGS WHITE GOLD, CERAMIC AND DIAMONDS

